

식코가 남긴 과제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고, 보험이 있어도 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미국 환자들의 현실을 고발한다. 그리고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보험회사와 이들의 로비에 휘둘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미국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식코'의 국내 관람객이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의료제도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과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표방한 '의료 산업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영화 '식코'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우리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논의가 겉돌기만 하다 끝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우선 논의에 앞서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의 장단점과 허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식코'가 일반 중산층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식 민간의료



글·이지혜
조선일보 기자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파헤쳤다고는 하더라도, 영화 한 편이 미국 의료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시코’를 두고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무어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의 제도에 대한 입체적 분석도 크게 부족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료제도를 원하는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사정권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도입한 제도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훌륭한 - 적어도 ‘시코’에 그려진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 듯 하다.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의료산업 발전 저해, 의료계의 불만 가중, 그리고 난치병 같은 심각한 질병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의사양성부터 진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하는 유럽식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영화 속 프랑스와 같은 제도를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기꺼이 낼 준비는 됐는지.... 국민이 공유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 들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없이, ‘미국식 악몽은 싫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안 된다’는 식의 단발적 논란은 말 그대로 논란 이상의 의미가 없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시코’ 논란도 곧 사그러들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은 진지하게 이어져야 한다.

‘시코’에 출연한 전 영국 상원의원 토니 밴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교육 받은 건강한 국민은 자신감에 차 있고, 그런 국민을 정부는 두려워한다.” 국민의 뜻대로 일 하는 정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교육과 건강이라면, 적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와 환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어떤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일이다. **KHA**

